



새로운 出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학교장/김 영 석

목 화향 그윽한 校庭에서의 기억들이 이제 하나의 추억(追憶)이 되었습니다. 문일인의 해맑은 웃음과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성상(星霜)을 지나왔습니다. 이에, 보다 큰 꿈을 품고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과 本校의 당부 傳統을 위해 땀흘리는 재학생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文苑 發刊에 즈음하여 몇 가지 당부(當付)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노력(努力) 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온 말이라 진부(陳腐)하게 들릴 지도 모르지만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옛말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의 적응과 자신의 知的 向上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한시도 나태(懶怠)한 자세를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히 학업에 精進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敎訓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교 교훈에도 勤勉과 誠實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일인 모두의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력하는 자세는 그 무엇보다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는 귀중한 要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책임의식(責任意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타인에게만 미루고 자신은 방관자(傍觀者)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 편의위주(便宜 爲主)의 利己的 態度를 가끔씩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성숙(成熟)하지 못한 태도는 분명히 시정(是正)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업준비나 예·복습은 물론, 학교에서의 생활면에 있어서 남들보다 앞서는 솔선수범(率先垂範)의 자세가 요구되며, 교실이나 학교 주변의 쓰레기도 자신의 생활터전을 청결히 한다는 責任意識이 수반(隨伴)되어야 할 것입니다. 本校 校訓의 세번째가 自律입니다. 인간 자신의 자율적 사고와 능력 신장을 강조하는 本校의 教育理念으로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自律은 責任을 隨伴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責任意識을 잊지 않는 성숙한 문일인이 되어줄 것을 當付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사고(肯定的 思考)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肯定的 사고를 하는 사람은 생활도 역시 긍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발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사에 부정적(否定的)인 사고를 갖는 사람은 생활이 불만에 가득 차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자신의 생활에도 발전이 없이 현실 부적응(現實 不適應)의 문제를 야기(惹起)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理想을 잃지 않고 긍정적 사고로 생활하는, 발전하는 문일인의 모습을 當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취(成就)하고자 하는 目標을 達成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나는 새로운 出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문일인에게 몇 가지 當付의 말을 전했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 책임의식(責任意識)의 각성(覺醒), 긍정적 사고(肯定的 思考)의 자세를 통해 社會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존재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